

일러두기

■ 문학

□ 조사 대상기간 :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자료조사 현황

- 단행본 발간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검색

구 분	시	소설	수필/산문	희곡	평론	번역
총 수	1,402	2,231	1,606	17	451	1,966

- 주요 문학잡지

종 수	조사대상
69	계간 문예, 계간 수필, 나래 시조, 내일을여는작가, 대산문화, 리얼리스트, 리토피아, 문예연구, 문예중앙, 문장웹진, 문학 선, 문학과사회, 문학과창작, 문학나무, 문학동네, 문학들, 문학마당, 문학미디어, 문학사상, 문학의문학, 미네르바, 미루, 불교문예, 서정시학, 세계의문학, 시로여는 세상, 시문학, 시와시, 시안, 시에, 시와동화, 시와반시, 시와사람, 시와사상, 시와세계, 시와시학, 시와정신, 시인세계, 시인시각, 시작, 시평, 신생, 실천문학, 심상, 아시아, 어린이와문학, 에세이플러스, 열린시학, 오늘의문예비평, 월간문학, 월간에세이, 자음과모음, 작가들, 작가세계, 작가와사회, 창비어린이, 창작과비평, 팬문학, 학산문학, 한국문학, 한국소설, 한국수필, 한국희곡, 현대문학, 현대시, 현대시문학, 현대시학, 황해문학, 21세기문학

- 주요 문학상

구 분	종합	시	소설	아동	시조	수필	평론	번역	청소년	희곡
조사대상(총)	161	72	41	38	24	12	11	5	5	1

- 주요 문학행사

구 분	조사대상(종)
기념 및 추모 행사	24
낭독·낭송 및 공연	40
독자와의 대화 및 만남	12
문인대회	7
문학강연	14
문학의 밤	8
문학기행	5
문학제, 문학축전	70
문학캠프, 문학학교	7
백일장	8
전시	14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37
기타	1

□ 작성항목

항 목 명	작성 내용
대분류	단행본, 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소사
중분류	분야에 따른 장르 구분
소분류	장르별 특수사항
작가	단행본 및 작품발표 작가명
도서명	단행본 표제
출판사	단행본 출판사명
역자	단행본 번역자명
장르	단행본의 장르별 종류
작품명	잡지 게재 작품명
수록잡지	작품수록 잡지명
호	잡지 발행 호수
시상 명칭 및 호수	문학상명과 호수
수상자	문학상 수상자명
수상작	문학상 수상작명
주최	문학상 운영자명
연월일	문학행사 및 문학소사 관련 날짜
행사명	문학행사명
행사주체	문학행사운영자명
행사내용	문학행사내용

□ 분류방법

- 문학 분야를 단행본, 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소사 등 5개로 크게 분류했다.
- 단행본은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 회곡(시나리오), 번역 분야로 분류했다. 시 분야에는 시조, 개인 시집 외 편지, 합동시집을 포함했고, 소설 분야에는 개인 창작집 외 편지, 장르소설을 포함했다.
- 잡지는 소설, 수필(산문), 시, 시조, 평론, 기타 분야로 크게 분류했다. 평론 분야는 소설평, 시평, 공연평론, 회곡평론, 음악평론, 작가론, 시인론, 서평과 함께 특집 시평(時評), 특집 칼럼, 지상강좌, 계간평, 월평, 기고 등을 포함했다. 기타 분야는 회곡, 동시, 동화, 풍트, 외국문학, 좌담, 청소년, 만화로 구성했다.
- 문학상은 특별한 분류 없이 매체와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된 문학상을 최대한 포괄하였다.
- 문학행사는 시간 순서로 개최된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 날짜, 행사명, 주관단체, 장소, 행사내용 순으로 기재하였다.
- 문학소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문학 관련 사건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 시각예술

□ 조사 대상기간 :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자료조사 현황

- 조사대상

조사대상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1월호부터 12월호에 수록된 전시 목록을 바탕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수집한 팸플릿, 도록, 엽서, 보도자료, 신문 미술기사, 잡지 미술기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	

- 신문 미술기사

지역	신문
서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 15종의 신문
지방	『강원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충청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일보』, 『광주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13개 해당 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시 정보 및 연합뉴스의 미술 소식 등

- 잡지 검색

분야	검색어
미술종합지	『월간미술』, 『아트인컬처』, 『아트프라이스』, 『퍼블릭아트』, 『미술세계』, 『미술시대』, 『미술신문』, 『월간미술인』, 『서울아트코리아』, 『옥션엔컬렉터』, 『매거진아트』, 『아트웨이브』
장르별 전문지	조각 전문지 『계간조각』, 공예 관련 『월간도예』, 『공예사랑』, 사진 관련 『월간사진』, 『사진예술』, 『포토넷』, 『포토박스』, 『포토저널』, 서예 잡지 『묵가』, 『서예문화』, 『서예문화』, 『월간서예』, 디자인 잡지 『월간디자인』, 『디자인네트』, 『지콜론』
지방 문예지	『문화나루』, 『기전문화』, 『대구문화』, 『갑천문화』, 『대전예술』, 『이즈 대전』, 『예술에의 초대』, 『보일라』, 『광주아트가이드』
문화계 관련지	『박물관 뉴스(구 박물관신문)』, 『문화제사랑』, 『월간문화재』 등
무가지	『아트뉴스(주영출판사)』, 『비아트』, 『전시가이드(월간전시 발간)』
기관지	『너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메세나(한국메세나협회)』, 『예술의전당(예술의전당)』, 『문화공간(세종문화회관)』, 『아트뷰(성남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뉴스레터』
미술관 소식지	『SEMA(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박물관미술관소식』 등
기타	『CNB저널』, 『주간한국』
온라인 매체	네오룩닷컴(www.neolook.com), 전시메일, 아트섬, 대전미술협회 웹진, 대구 전시정보 카페, 부산 전시정보 카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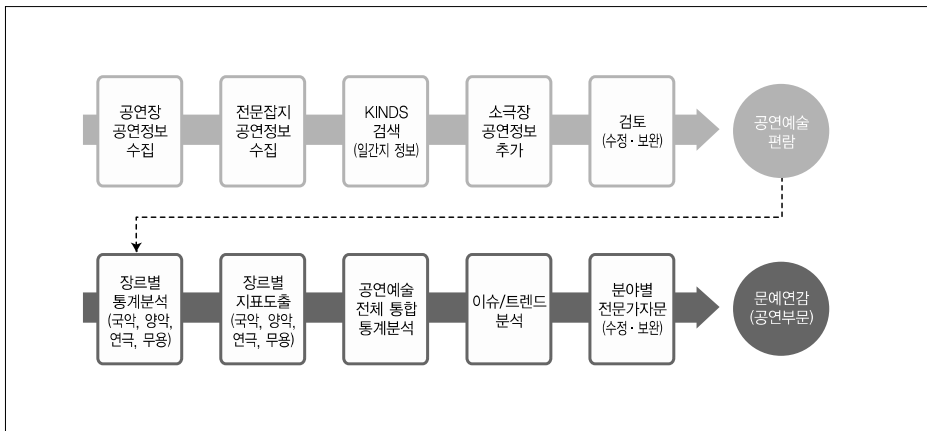
□ 작성항목

항 목 명	작성 내용
대분류	국내전, 국외전
중분류	국내전-개인전/ 단체전/ 해외작가국내전, 국외전-국내작가해외전
소분류	장르별 특수사항
전시명	개인전-작가명, 단체전-전시명 또는 단체명, 해외작가 국내전-작가명 또는 전시명, 국내작가 해외전-작가명 또는 전시명, 행사명
지역	국내전-16개 시도 단위, 국외전-나라/도시 단위
전시장	전시장소명
시작일	전시 시작일
종료일	전시 종료일
참여작가	단체전의 주요 참여 작가 및 해외 참여 작가 국적별 기록
전시내용	전시 주제, 간략한 내용 기록
지원금 여부	문화예술지원금 지원 전시 표시

■ 공연예술

□ 조사 대상기간 :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작성 프로세스



- 공연장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원 공연장 148개(2011.3.15 기준)

경기(20)+서울(19)+경북(15)+경남(12)+전남(14)+충남(13)+대구(11)+강원(11)+
전북(7)+부산(7)+충북(5)+인천(4)+대전(3)+울산(4)+광주(1)+제주(2)

- 분야별 전문잡지

분야	잡지명
공통	객석, 공연과 리뷰, Scene Playbill
국악	국악누리(국립국악원), 국악신문
양악	음악춘추, 음악저널, Choir & Organ, International Piano, Music Friend, String & bow, The Music, The Piano, The Strad
연극	한국연극, 더 뮤지컬(The Musical)
무용	댄스포럼, 몸, 춤, 춤과 사람들

※ 'The Proud', '서울스코프' 폐간

- 한국언론재단 제공(전국종합일간지+지역종합일간지+경제일간지) 기사 통합 검색

- 2009.11.1.(사전 홍보기간 2개월 포함)부터 2011.2.28.(리뷰 기간 2개월 포함)까지 검색
- 국악 43,100건, 양악 45,629건, 연극 23,813건, 무용 20,742건, 기타 763건 등 전체 134,047건 기사 검색

분야	검색어
국악	연희(6,817건), 풍물(5,111건), 판소리(4,706건), 산조(4,580건), 민요(4,322건), 사물놀이(3,935건), 2010 국악(3,739건), 마당놀이(3,713건), 풍류(1,512건), 정악(1,443건), 병창(1,095건), 창극(1,021건), 마당극(887건), 국극(219건)
양악	오케스트라(8,785건), 합창단(7,633건), 교향악(4,122건), 2010 음악회(3,533건), 관현악(2,891건), 필하모니(닉)(2,668건), 2010 오페라(2,557건), 심포니(2,041건), 2010 연주회(2,023건), 2010 클래식 공연(1,819건), 실내악(1,788건), 콰이어(1,295건), 챔버(1,146건), 리사이틀(1,089건), 체임버(869건), 챔버(101건), 2010 음악제(495건), 2010 독주회(467건), 2010 합창제(117건), 2010 독창회(103건), 2010 관악제(87건),
연극	2010 극장(8,155건), 2010 연극(5,143건), 2010 뮤지컬(4,927건), 2010 극단(3,469건), 2010 현대극(1,368건), 2010 인형극(630건), 2010 아동극(121건)
무용	2010 무용(5,765건), 2010 댄스(4,099건), 2010 춤(3,908건), 2010 퍼포먼스(3,501건), 2010 발레(1,874건), 2010 안무(1,595건)
기타	복합장르(492건), 다원예술(271건)

- 한국소극장협회 소속 116개 공연장(2010년 5월 말 기준) 대상 개별 협조 요청 결과 최종적으로 15개 극장만 자료 제공 협조

- 116개 공연장 중 '극단로댐', '포스트극장', '(주)연극열전', '두레홀1-4관', '배우세상', '벽수골소극

장, '선돌극장', '소극장여우', '전주창작소극장', 'PMC대학교자유소극장', '김동수플레이하우스', '동선아트홀', '소극장창덕궁', '소극장산울림', '극단드림' 등 15개 소극장에서 공연정보 제공.

□ 작성항목

항목명	작성 내용
대분류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중 해당되는 분야
중분류	대분류의 각 분야별 하위 장르 구분
소분류	장르별 특수사항
공연명1~2	공연명1은 공식 공연명, 부제 또는 페스티벌명은 공연명2에 기록
단체명	공연단체명(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
단체국적	공연 단체의 국적(국내/국외/협업)
시작일	공연 시작일
종료일	공연 종료일
공연 횟수	공연 기간 중 총 공연 횟수
주최	포스터나 공식자료상의 주최로 명시된 기관·단체
지역1~2	지역1은 16개 시도 단위, 지역2는 시군구 단위
공연장1~2	여러 공연장을 갖춘 복합공연장명을 공연장1, 개별 공연장 이름을 공연장2에 기록
페스티벌/경연대회	페스티벌이나 경연대회일 경우 표기
인적정보	양악·작곡가, 연극·극작가·예술감독·연출가, 무용·안무가 기록

□ 분류방법

- 기존 분류방식과 같이 문예연감은 공연예술 분야를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4개 분야로 나눈다.
- 2011년 한 해 동안의 공연을 계량화하는 단위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두 가지. 공연 건수는 한 공연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하나로 센다. 공연 횟수는 그 기간 동안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 횟수를 더한 값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한 공연장에서 A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면 공연 건수는 1건이다. 그리고, 이 공연이 하루에 1회씩 무대에 올랐다면, A 공연의 공연 횟수는 3회가 된다. A 공연이 공연장을 옮겨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연을 했다면, 이 공연은 앞선 1월의 공연과 별도의 공연 건수로 반영한다.

- 국악 분야 공연은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했다. 악기 연주 중심 공연을 '기악', 판소리·민요 등 소리 중심 공연을 '성악', 창극·국극·음악극·마당놀이·사물놀이 등을 '연희'로 구분했다. 이는 현재 국악 분야를 나누어 보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일 뿐, 향후 국악 공연의 성장과 함께 분류체계에 대한 고민은 이론가와 평론가 공동체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하리라 본다. '혼합'은 한 공연에서 앞서 언급한 기악, 성악, 연희 세 장르 중 둘 이상이 한데 공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립국악원의 '토요상설공연'처럼 정악·민속악 연주, 판소리·민요, 굿춤 등을 한 무대에 번갈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복합'은 국악 내의 하위 장르가 아니라, 양악·연극·무용·영상처럼 국악이 아닌 타 장르와의 협업에 기초한 공연을 말한다. 그럼에도 큰 의미에서 국악에 분류한 까닭은 해당 공연의 큰 줄기가 국악에 기초하고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 예를 들어 "국악 뮤지컬 아기돼지 꼬끼이"와 같은 공연은 뮤지컬 형태이긴 하지만, 창작 국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뮤지컬로 분류하는 것보다 국악 중 복합 장르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 다섯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들은 '기타'로 분류해, 향후 새로운 범주의 생성에 활용하거나 현 분류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공연계의 모습을 담도록 했다.
- 이러한 장르 구분과 별도로 각 국악공연들이 창작 작품인지, 기존에 공연을 했던 작품인지를 추가적으로 기록했다. 소분류에서 창작 작품은 '창작', 기존에 공연을 했던 작품은 '레퍼토리'로 표현했고,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작품은 '미분류'로 두었다.
- 양악 분야 공연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로 구분했다. 기존 '성악'에서 합창을 따로 독립시켜 반영한 것이 2011년 문예연감의 특징이다. 성악 중 합창의 비중이 다른 성악 공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그 흐름을 보다 뚜렷하게 파악하기 위해 범주를 세분화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음악 중심의 가극을 '오페라', 기악·성악·오페라의 구분 없이 국내 작곡가들이 새로운 창작곡을 처음 발표하는 공연을 '작곡발표'로 구분했다. '혼합'은 양악 분야의 하위 장르인 기악·성악·오페라 중 두 장르 이상이 협연하는 공연이다. '복합'은 양악과 국악·연극·무용·영상 등이 협업을 이루는 공연을 말한다. 국악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업의 중심이 양악에 있을 경우에만 양악 분야의 '복합' 장르로 구분했다. 이런 범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들은 역시 '기타'로 구분했다. 재즈나 뉴에이지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연극 분야 공연은 기존과 크게 다름없이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로 구분했다. '연극'과 '뮤지컬'을 구분하고, 언어적인 요소가 배제되거나 극히 적고 여러 신체예술이나 행위예술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퍼포먼스'로 구분했다. '난타', '점프', '드럼캣' 등이 이에 속한다. '혼합'은 연극 분야의 하위 장르인 연극·뮤지컬·퍼포먼스 중 두 개 이상의 장르 간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말한다. '복합'은 연극 분야와 국악·양악·무용·영상 등의 협업에 기반한 공연을 말한다. 그중 연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를 연극에 포함시키고 '복합'으로 구분했다. 그 외 어느 한 범주로 명확한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들은 '기타'로 구분했다. 인형극, 체험극, 드로잉쇼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연극 분야의 경우 중분류 외에 두 가지 소분류가 포함되었다. 하나는 극본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국내에서 극본이 주로 쓰인 경우를 '국내창작극', 외국에서 주로 쓰인 극본을 국내에서 번역한 경우를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원작이 외국 소설이더라도 이를 각색한 작가가 국내 작가일

경우 창작극으로 분류했다. 이외에 희곡 작가나 작곡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극작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작이 명확하게 외국 작품인 경우에도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또 하나 연극 분야에 한해서 대상관객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작년에 이어 도입했다. 주 대상관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연극'으로 별도 표시한 것이다. 이는 갈수록 아동청소년연극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 흐름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범주로 독립시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 기록방법

- 모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할 때는 가능한 공연 기획 주체의 설명과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 단체명과 단체의 국적은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 기록했으며, 기록이 끝난 뒤 같은 단체는 다양한 매체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시켰다. 수집된 정보가 모든 단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언급하고 있는 단체만 반영했다.
- 공연 횟수는 다양한 공연 횟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공연한 그대로를 직접 세어 반영하고자 했으나, 반년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에는 평일·휴일 등의 일괄적인 공연방침에 기초해 추정했다. 따라서 일부 공연 횟수는 추정에 따른 오차가 다소 반영되었을 수 있다.

□ 분석방법

- 편람 작성 뒤에는 공연명, 단체명, 공연장명 등을 통일하는 작업을 포함해 3차례에 거친 검토와 최종 확인 과정을 통해 가능한 데이터 오류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했다.
- 편람 자료의 분석은 엑셀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 각 정보들의 기초통계적인 현황을 파악해 현황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 각 정보들을 다각도로 교차분석 해 분석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교차분석 종류와 결과는 각 공연 분야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미를 파악할 때 분야별 특성을 고려했다.
-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요 공연장을 선정하는 기준을 달리했다. 국악·무용은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가 많지 않아 연간 30회 이상의 공연장을 주요공연장으로 선정했다. 양악은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공연 수가 많아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장을 주요 공연장으로 선정했다. 연극은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가 많아 공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30건 이상의 공연장을 주요 공연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몇몇 공연을 장기간 동안 여러 회 공연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해 연간 300회 이상 공연장을 추가로 선정했다.
- 기타 분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현황분석에서 자세히 서술해 두었다.

[2011 문예연감 집필자 소개]

□ 문학

■ 총론 / 현황분석 / 편람: 이민호(1963년생)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현재 서강대학교 국문과 대우교수

□ 시각예술

■ 총론 / 하계훈(1958년생)

고려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런던 시티대 미술관경영학 석사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미술평론가

■ 총론 / 이선영(1965년생)

미술평론가,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미술평단] 편집장 역임.

■ 현황분석 / 편람: 김달진(1955년생)

서울산업대,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사 / 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 공연예술

■ 국악 총론 / 전지영(1971년생)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 서울대,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 추계예술대학교 출강

■ 양악 총론 / 황성호(1955년생)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넥스트 웨이브 콘서트 감독, ICMC 2000(베를린) 위촉 추천위원

■ 연극 총론 / 김미혜(1948년생)

연극평론가,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연극영화학 전공 교수

■ 무용 총론 / 이종호(1953년생)

무용평론가,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회장

■ 현황분석 / 편람: 황윤숙(1968년생)

이화여대 무용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 석사 /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 북한문화

■ 총론: 오양열(1953년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1998)) / 현 서울문화재단 수석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 부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문화체육관광분과)